「국정관리연구」 제8권 제2호(2013. 12): *27-53*

#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정·박성민

본 연구는 중앙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효과성 인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직봉사동기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시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이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적극적 시민참여, 제한적 시민참여)를 매개로하여 공직봉사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시민참여에 대한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 모두에 영향을 미치나, 적극적 시민참여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 중 적극적 시민참여만 공직봉사동기(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서 적극적 시민참여가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시민참여의 효과성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양적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 관리, 그리고 시민참여의 시각에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 인식, 적극적 시민참여, 제한적 시민참여, 공직봉사동기(PSM)〕

## I. 서 론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참여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54).
논문 접수일: 2013.11.30., 심사기간(1차): 2013.12.02.~12.20, 게재 확정일: 2013.12.26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점차 다원화(diversification)되고 있고, 공공부문 이외에도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향한 사회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과거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공공부문을 주축으로 한 수직적인 구조와 상명하달식 전달체계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며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시민이 정책이나 행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 및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논의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박천오(2002)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시민참여의 제도적 통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정부 관료제의 시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이 강한 수직적 관료제에 근거해 운영되어왔던 만큼 정책적 환경이 변화하고 활성화 되는 데에도 분명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적 환경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거나 정부에 의사소통 기회를 요청하더라도 정부 관료인 공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참여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이 당연시되었다.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시민이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제한받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가 구현되고 시민이 소통하는 방식 또한 다양해지면서 여러 방식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참여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정의 영역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되는 대상인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구성원인 공무원이 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시민을 대하는 태도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다시 말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시민에게 행정과정 혹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공무원 개인이 갖고 있는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 인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 인식(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이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적극적 시민참여, 제한적 시민참여)를 매개로 하여 공직봉사동기(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시민에 대해 갖는 인식을 제고하고, 공무원 개인이 지니는 공직봉사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논의

## 1. 시민 참여

일반적으로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정책 및 행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참여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의 과정에 시민이라는 대상이 추가 또는 포함되어 과정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시민의 활동 및 사회 참여의 과정 자체를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회 자본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다양한 관계의 연결망(network)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Portes, 1998) 등으로 정의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연결망을 넘어서 사회 자본을 그 사회의 문화적·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Putnam, 1995)이라 정의한다.

시민참여를 사회 자본으로 본다면, 미시적 차원의 관계나 연결망 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연결이나 규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송경재(2007)의 연구에 따르면, 회원활동·기부금·자원봉사 등을 규정한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호혜성[1]의 규범이 강

1) 사회 자본을 규범과 가치로 이해하는 거시적 접근방식에서 생각해보면, 신뢰와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측면이 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호혜(互惠)는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이다. 여기서 덧붙여 생각해볼 점이 사회 자본에서의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 호혜성은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되돌아오며 어쩌면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이다(sahlins, 1972; Newton, 1997).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 등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할수록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남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청원·서명·집회 등 행동적이고 저항적인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호혜성의 규범만 설명력을 지녔다. 이는 사회 자본의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 신뢰와 호혜성이 시민참여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유재원·이승모(2006)는 시민참여 중에서도 시민접촉[2)]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특정 개인의 사적 수요의 충족을 위해 행해지는 특수적 접촉(particularized contacting)보다는 공동체 등의 사회집단이 안고 있는 공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ing)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접촉을 하게 된 동기도 물질적 편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만족이나 시민적 만족의 충족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편익보다는 사회적·시민적 만족과 같은 정서나 가치 등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참여를 사회자본이나 중시하는 가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 이외에 시민참여의 형태나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참여의 성격이나 방식 등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Arnstein(1969)은 시민 참여의 단계를 8단계[3)]로 나누고 시민 참여 정도에 따라 크게 실질적 비참여(하위단계), 상징적 참여(중간단계), 실질적 참여(상위단계)의 3단계로 나누었다. Langton(1978)은 시민참여를 크게 시민행동과 시민개입으로 분류[4)]하였는데 여기서 시민행동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를 의미하고 시민개입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민참여의 형태를 의미한다. 전영평 외(2007)는

---

2) 선거나 정당 등의 대의적 정치제도가 대중의 이익을 결집하여 투사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시민이 사적 혹은 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을 만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민접촉이라고 보았다(유재원·이승모, 2006).

3) Arnstein(1969)은 시민참여를 세부적으로 8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참여의 정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1단계는 하위단계로 참여의 정도는 '실질적 비참여' 단계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민참여는 조작(manipulation)과 심리적 치유(therapy)이다. 2단계는 중간단계로 참여의 정도는 '상징적 참여' 단계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민참여는 정보제공(informing), 상담(consultation), 회유(placation)이다. 마지막 3단계는 상위단계로 참여의 정도는 '실질적 참여' 단계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반자관계(partnership), 권력위임(delegated power), 시민통제(citizen control)이다.

4) Langton(1978)은 시민참여를 시민행동과 시민개입으로 분류하였다. 시민행동(citizen action)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참여형태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로비, 시위, 옹호 활동 등이 포함된다. 시민개입(citizen involvement)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민참여의 형태로 공청회, 자문위원회, 시민의식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참여로는 선거참여(electoral participation)와 의무참여(obligatory participation)가 있다고 보았다.

시민참여의 주도권(initiative)과 단위(unit)를 기준으로 총 8개 유형[5]으로 시민참여를 유형화 하였다. 주도권은 크게 2가지 기준으로 행정주도(citizen involvement)와 시민주도(citizen participation)로 구분되며, 단위는 4가지 기준으로 개인(individual), 집단(group), 조직(organization), 연대/네트워크(network)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이 행정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awareness)과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attitude)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는 행정주도·제한적 시민참여(citizen involvement: 시민개입)와 시민주도·적극적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시민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 2.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인식(認識)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지·지각·판별 등과도 유사하게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이나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을 일컫는다. 인식은 단순히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그 개념을 얻기 위한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식을 바탕으로 실행 및 실천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 관한 연구가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각 집단 간 비교를 바탕으로 기존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숙종 외(2008)는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 모두 사회신뢰와 기관신뢰 모두 일반국민보다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고, 자

5) 전영평 외(2007)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다음과 같은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위는 개인, 집단, 조직, 연대/네트워크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도권은 행정주도(시민개입/정부동원)와 시민주도(시민참여/시민운동)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제1유형은 개인-행정주도의 개인적 개입, 제2유형은 개인-시민주도의 개인적 참여, 제3유형은 집단-행정주도의 집단적 개입, 제4유형은 집단-시민주도의 집단적 참여, 제5유형은 조직-행정주도의 조직적 개입, 제6유형은 조직-시민주도의 조직적 참여, 제7유형은 연대/네트워크-행정주도의 연대적 개입, 제8유형은 연대/네트워크-시민주도의 연대적 참여이다.

신이 속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공무원은 중앙정부, 시민단체 직원은 시민단체)는 높았으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상당 수준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주행위자인 공무원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시민의 행정참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 인식'은 시민참여의 수용성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에 대한 기회 제공과 같은 '태도(attitude)'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성 인식을 긍정적(positive) 인식과 부정적(negative) 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 공직봉사동기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동기'에 대한 관심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왔다.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는 '공공가치의 실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동기 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성향(김상묵, 2013)'을 의미한다.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Perry & Wise(1990)의 연구로,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을 선택한 사람은 외재적 보상(extrinsic rewards)보다 내재적 보상(intrinsic rewards)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이한 가치 및 욕구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덧붙여 공직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은 공공부문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공직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과 또한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 Perry & Wise(1990)의 연구를 시작으로 공직봉사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이러한 동기는 공공 부문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개인적인 성향(individual's predisposition)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공직봉사동기는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Rainey & Steinbauer(1999)는 공직봉사동기를 '공동체, 국가, 국민이나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 동기 및 공직윤리(public service ethic)'로, Perry & Hondeghem(2008)는 '타인에게 이타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선행을 하거나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 또는 행동'으로 보았다. Vandenabeele(2007)는 '사적 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이 아닌 보다 더 큰 정치

적 실체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념, 가치, 태도'로 보았으며, Park & Rainey(2012)의 연구에서도 공공부문 종사자는 개인적 이익과 권력 등을 지향하는 외재적 동기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내재적 동기를 더 선호한다고 보았다.

공직봉사동기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인데, Perry & Wise(1990)는 공직봉사동기를 합리적(rational) 동기, 규범적(norm-based) 동기, 정서적(affective) 동기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합리적 동기는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포괄하는데 이때 개인적 효용은 봉사가 개인적인 가치로 전환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즉,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개인적인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고 특정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등의 동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규범적 동기는 사회적 규범이나 공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노력이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 등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동기는 타인에 대한 애정과 희생을 기반으로 한 감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정책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것,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력, 박애적 애국심(patriotism of benevolence)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직봉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Perry(1996)는 6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초기에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시민의무, 사회정의, 동정심, 자기희생이라는 6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사회정의와 시민의무는 공익몰입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4가지 요소를 공직봉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도(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 APM)는 공공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공직봉사동기 중 합리적 동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공익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s: CPI)은 공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공익 추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공직봉사동기의 규범적 측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동정심(compassion: COM)은 단어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 사회정책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입장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공직봉사동기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동정심(COM)과 더불어 자기희생(self-sacrifice: SS) 역시 공직봉사동기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돕는데, 이는 타인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정도나 사회적 대의

를 위해 자신이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공무원의 공직봉사동기(PSM)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의 타인 지향적(other oriented)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란 가정 하에 공직봉사동기의 타인 지향적 특성이 드러나는 구성요소-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 4.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이 행정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awareness)이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attitude)를 매개로 공직봉사동기(PSM)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시민의 행정참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 인식은 시민참여에 대한 기회제공과 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성 인식을 긍정적(positive) 인식과 부정적(negative)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는 제한적 시민참여와 적극적 시민참여로 구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PSM(nonprofit public service motivation: NPSM)에 관한 경험적 연구 내용과 결과(Word & Park, 2009; Park & Word, 2012; Word & Carpenter, 2013)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 시민참여 성향은 규범적, 이타적, 공익 지향적 태도를 포함하는 공직봉사동기에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는 공직봉사동기의 타인 지향적(other oriented)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기초하여 공직봉사동기의 타인 지향적 특성이 드러나는 구성요소-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 가설

| | 내 용 |
|---|---|
| 가설 1 |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적극적 시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2 |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적극적 시민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3 |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공무원의 제한적 태도(제한적 시민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4 |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무원의 제한적 태도(제한적 시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5 |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적극적 시민참여)는 공익몰입(CPI)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6 |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제한적 태도(제한적 시민참여)는 공익몰입(CPI)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7 |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적극적 시민참여)는 동정심(COM)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8 |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제한적 태도(제한적 시민참여)는 동정심(COM)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9 |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적극적 시민참여)는 자기희생(SS)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 가설 10 |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제한적 태도(제한적 시민참여)는 자기희생(SS)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

# III. 연구 설계

## 1. 표본의 구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주관하여 시행된 「관료의 시민신뢰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관료의 시민신뢰 조사」는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수를 위해 입소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며, 설문은 관료의 시민신뢰 관련 문항, 시민참여 관련 문항, 업무 및 조직 관련 문항, 응답자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그 중 유효한 설문 255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변수 | 구분 | 빈도(%) | 변수 | 구분 | 빈도(%) |
|---|---|---|---|---|---|
| 성별 | 남 | 221(86.7) | 공무원 종류 | 일반직 | 242(94.9) |
| | 여 | 27(10.6) | | 기능직 | 1(0.4) |
| | 무응답 | 7(2.7) | | 별정직 | 1(0.4) |
| 연령대 | 20 대 | 2(0.8) | | 계약직 | 1(0.4) |
| | 30 대 | 12(4.7) | | 고용직 | 1(0.4) |
| | 40 대 | 127(49.8) | | 무응답 | 9(3.5) |
| | 50 대 | 103(40.4) | 공무원 근무 총 재직 연수 | 5 년 미만 | 4(1.6) |
| | 무응답 | 11(4.3) | | 5 ~ 10 년 미만 | 8(3.1) |
| 학력 | 고졸 | 19(7.5) | | 10 ~ 15 년 미만 | 13(5.1) |
| | 전문대졸 | 23(9.0) | | 15 ~ 20 년 미만 | 51(20) |
| | 대학교 재학 | 2(0.8) | | 20 ~ 25 년 미만 | 46(18) |
| | 대학교 중퇴 | 5(2.0) | | 25 ~ 30 년 미만 | 62(24.3) |
| | 대졸 | 124(48.6) | | 30년 ~ 35 미만 | 58(22.7) |
| | 대학원 재학 | 2(0.8) | | 35년 이상 | 2(0.8) |
| | 대학원 수료이상 | 70(27.5) | | 무응답 | 11(4.3) |
| | 무응답 | 10(3.9) | | | |
| 총 합계: 255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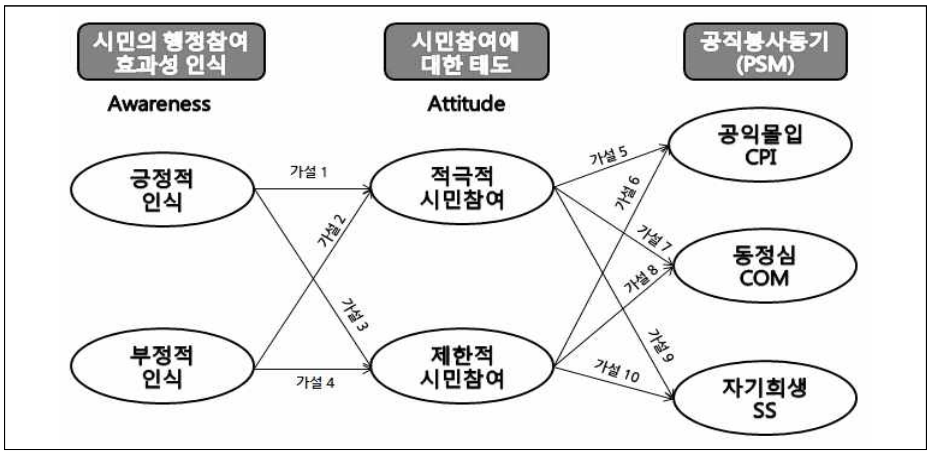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6.7%, 여성이 10.6%로 남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49.8%로, 50대 40.4%로 거의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대졸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수료이상의 학력 또한 27.5%로 높은 편이었다. 설문은 약5% 비율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이 응답하였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총 재직연수는 25년 이상 ~ 30년 미만이 24.3%, 30년 이상 ~ 35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 22.7%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이 많았다.

##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시민이 행정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awareness)이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attitude)를 매개로 공직봉사동기(PSM)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아래에 제시된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성 인식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시민참여에 대해 공무원이 갖는 태도는 행정이 주도하는 제한적 시민참여와 시민이 주도하는 적극적 시민참여로 구분하였다. 공직봉사동기(PSM)는 타인 지향적 특성이 드러나는 구성요소인 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을 하위요소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긍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제한적 시민참여에 있어서는 반대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적극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의 각 하위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한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의 각 하위요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3. 변수의 구성

연구를 위한 설문 내용과 변수의 구성은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참여 효과성 인식 중 긍정적 인식에 5개 항목, 부정적 인식에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에 각각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봉사동기에 있어서는 공익몰입(CPI), 동정심(COM), 자기희생(SS)에 각

각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그저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는 리커트(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항목 구성은 요인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구성

| 변수 | 변수명 | | 문항 | 설문 내용 |
|---|---|---|---|---|
| 독립변수 | 시민참여 효과성의 긍정적 인식 | | Q12_1 | 대중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 Q12_2 |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 | | | Q12_3 |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 | | | Q12_4 | 정부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 | | | Q12_6 | 정부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 | 시민참여 효과성의 부정적 인식 | | Q12_8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 |
| | | | Q12_9 | 집행예산의 손실을 가져 온다. |
| | | | Q12_10 |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
| | | | Q12_11 | 비용과 시간 등 자원 소모가 많다. |
|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 적극적 시민참여 | | Q13_3 | 더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개인적 시간을 소비할 의향이 있다. |
| | | | Q13_6 | 시민참여는 비용이 들어도 장려되어야 한다. |
| | | | Q13_7 | 공무원의 시민참여 주도는 성과평가 지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
| | 제한적 시민참여 | | Q13_4 |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행정 관료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
| | | | Q13_5 |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 참여시킬 시민들이 선별되어야 한다. |
| | | | Q13_8 | 대개의 경우 공무원의 결정은 시민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
| 종속변수 | 공직봉사동기(PSM) | 공익몰입 | Q20_4 | 공공봉사는 시민의 의무이다. |
| | | | Q20_5 | 사적인 이득과 무관하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
| | | | Q20_6 | 공공봉사는 나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
| | | 동정심 | Q20_7 |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발전의 필수적 요소다. |
| | | | Q20_8 |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
| | | | Q20_9 |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
| | | 자기희생 | Q20_10 | 개인적인 성취보다 사회에 대한 기여가 더 중요하다. |
| | | | Q20-11 |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
| | | | Q20_12 |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다. |

# IV. 실증 분석

## 1.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공무원의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들 간에 공통적 요인들을 추출하여 전체자료로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분석 기법이다(이훈영, 2006).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종류 중 자료축소의 대상을 변수로 하는 R-type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참여 효과성 인식 및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변수 간의 내재된 관계를 좀 더 탐색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공직봉사동기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출한 요인들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각회전 방법인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들의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시민참여 효과성인식이 0.854,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0.692, 공직봉사동기는 0.863로 모두 0.5 이상이므로 변수들의 상관관계 정도가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냈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성(communality)에 있어서는 시민참여 효과성 인식 중 2문항,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2문항, 공직봉사동기 중 1문항이 0.5이상의 값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효과성 인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해당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직봉사동기의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므로 공통성에 대한 통계적 값이 부족하나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문항들을 제외한 문항의 공통성은 0.5 이상으로, 각 변수의 분산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각 요인별로 할당된 변수가 얼마나 일관성을 갖고 해당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이면 요인이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민참여 효과성 인식 중 긍정적 인식은 0.941, 부정적 인식은 0.879,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중 적극적 시민참여는 0.759, 제한적 시민참여는 0.489, 공직봉사동기 중 공

익몰입은 0.809, 동정심은 0.567, 자기희생은 0.867로 두 요인을 제외하고는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구성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제한적 시민참여의 신뢰도는 변수를 줄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었으나 적은 문항으로 한 요인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반영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한 후 제시된 결과와 같이 진행하였다. 공직봉사동기의 동정심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적 수치가 부족하더라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구성한 문항이므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 변수 | 변수명 | | 문항 | 설문 내용 | 요인 적재량 | 신뢰 계수 |
|---|---|---|---|---|---|---|
| 독립변수 | 시민참여 효과성의 긍정적 인식 | | Q12_1 | 대중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871 | .941 |
| | | | Q12_2 |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914 | |
| | | | Q12_3 |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924 | |
| | | | Q12_4 | 정부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909 | |
| | | | Q12_6 | 정부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862 | |
| | 시민참여 효과성의 부정적 인식 | | Q12_8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 | .872 | .879 |
| | | | Q12_9 | 집행예산의 손실을 가져 온다. | .875 | |
| | | | Q12_10 |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 .850 | |
| | | | Q12_11 | 비용과 시간 등 자원 소모가 많다. | .778 | |
|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 적극적 시민참여 | | Q13_3 | 더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개인적 시간을 소비할 의향이 있다. | .760 | .759 |
| | | | Q13_6 | 시민참여는 비용이 들어도 장려되어야 한다. | .838 | |
| | | | Q13_7 | 공무원의 시민참여 주도는 성과평가 지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 .812 | |
| | 제한적 시민참여 | | Q13_4 |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행정 관료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 .740 | .489 |
| | | | Q13_5 |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 참여시킬 시민들이 선별되어야 한다. | .640 | |
| | | | Q13_8 | 대개의 경우 공무원의 결정은 시민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 .691 | |
| 종속변수 | 공직봉사동기(PSM) | 공익몰입 | Q20_4 | 공공봉사는 시민의 의무이다. | .879 | .809 |
| | | | Q20_5 | 사적인 이득과 무관하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 .875 | |
| | | | Q20_6 | 공공봉사는 나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 .801 | |
| | | 동정심 | Q20_7 |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발전의 필수적 요소다. | .871 | .567 |
| | | | Q20_8 |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 .864 | |
| | | | Q20_9 |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 .469 | |
| | | 자기희생 | Q20_10 | 개인적인 성취보다 사회에 대한 기여가 더 중요하다. | .827 | .867 |
| | | | Q20-11 |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 .912 | |
| | | | Q20_12 |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다. | .932 | |

## 2.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다른 잠재변수들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잠재변수(exogenous latent variable)로는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인식(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이 있다. 그리고 외생잠재변수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되는 내생잠재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로는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적극적 시민참여, 제한적 시민참여)와 공직봉사동기(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가 있다. 각 변수는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 | 긍정적 인식 | 부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제한적 시민참여 | 공익몰입 | 동정심 | 자기희생 |
|---|---|---|---|---|---|---|---|
| 긍정적 인식 | 1 | | | | | | |
| 부정적 인식 | .042 | 1 | | | | | |
| 적극적 시민참여 | .460** | -.018 | 1 | | | | |
| 제한적 시민참여 | .179** | .368** | .268** | 1 | | | |
| 공익몰입 | .306** | -.062 | .363** | .082 | 1 | | |
| 동정심 | .344** | .046 | .258** | .112 | .640** | 1 | |
| 자기희생 | .198** | -.039 | .294** | .110 | .557** | .486** | 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으로 유의하다.

<표 5>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 제한적 시민참여,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에 0.01 수준으로 유의하게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제한적 시민참여에만 0.0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적극적 시민참여와 공익몰입, 자기희생에 있어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시민참여는 제한적 시민참여,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모두에 0.0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한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공직봉사동기 중 공익몰입은 동정심과 자기희생에 0.0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동정심도 자기희생에

0.0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의 상관관계는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의 값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본 연구 가설의 일부를 해석하는데 있어 방법론적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3. 구조방정식 분석

본 연구에 제시된 연구 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추정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권장되는 표본의 크기는 200 정도 되는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255이므로 안정적인 모델 검증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모형 적합도 결과

| 적합도 지수 | 절대적합지수 | | | | 기타 |
|---|---|---|---|---|---|
| | CMIN (Chi-square) | df | P | CMIN/DF (normed $X^2$) | RMSEA |
| 값 | 450.950 | 235 | .000 | 1.919 | .060 |
| 기준 | | | | ≤2.0 | ≤0.05 |

| 적합도 지수 | 증분적합지수 | | | | |
|---|---|---|---|---|---|
| | NFI | RFI | IFI | TLI | CFI |
| 값 | .873 | .838 | .935 | .915 | .933 |
| 기준 | ≥0.9 | ≥0.9 | ≥0.9 | ≥0.9 |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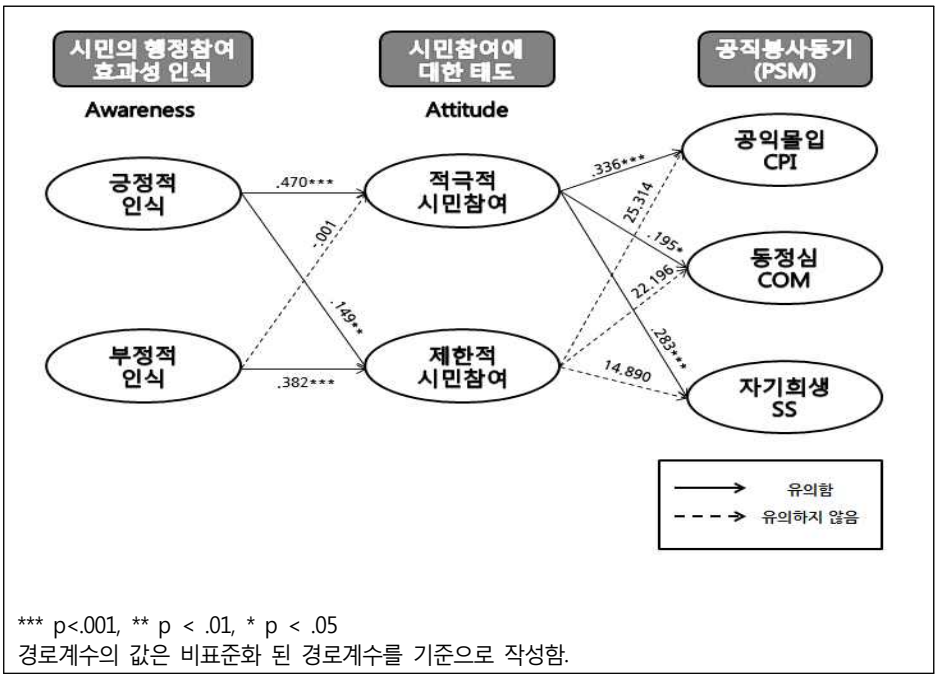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MIN($x^2$검정) 값은 450.950(df=235), P 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CMIN/DF(normed $x^2$)의 값은 1.919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060인데 이 값은 일반적으로 0.05 이하인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Steiger(1990)는 이 값이 0.10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 시키고, 0.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 시키고, 0.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Hair et al.(2006)은 표본의 크기가 250개 이상이고 관측변수의 수가 12개에서 30개인 경우 RMSEA는 <.07(CFI .92 이상)을 충족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55개이고 관측변수의 수는 24개이며, RMSEA 값과

CFI값이 위에 제시한 기준 값을 충족하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어 모형의 증분 적합지수 중 NFI(표준적합지수)는 .873, RFI(상대적합지수)는 .838로 일반적인 적합지수의 값에는 못 미치는 0.8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값이 기준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외에 IFI(증분적합지수)는 .935, TLI(터커-루이스 지수)는 .915 CFI(비교적합지수)는 .933으로 일반적인 적합지수의 값을 충족하였으므로 연구모형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중 모수추정치(estimate)를 도식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6)]




구조모형에서 비표준화 경로계수들은 잠재변수와의 상대적 영향관계를 보여준다.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470)와 제한적 시민참여(.149)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6) 본 연구에서는 공직봉사동기(PSM)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2개의 독립 선행변수(간접효과)와 2개의 매개 선행변수(직접효과)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 선행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효과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정적 인식은 제한적 시민참여(.382)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중 적극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의 하위 요인인 공익몰입(.336)과 동정심(.195), 그리고 자기희생(.293)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제한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의 어떠한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 모두를 강화시키는데, 영향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적극적 시민참여(.470)가 제한적 시민참여(.149)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나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한적 시민참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중 적극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 중 타인지향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 공익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요인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나 제한적 시민참여는 어떠한 동기요인도 강화시키지 못하였다.

추정된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제시한 <표 7>과 같다.

〈표 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 | 연구 가설 | Estimate | S.E. | C.R. | p | 결과 |
|---|---|---|---|---|---|---|
| 가설 1 | 시민참여 효과성 긍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 .470 (.540) | .067 | 6.968 | *** | 채택 |
| 가설 2 | 시민참여 효과성 부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 -.001 (-.001) | .060 | -.015 | .988 | 기각 |
| 가설 3 | 시민참여 효과성 긍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 .149 (.364) | .052 | 2.878 | .004 | 기각 |
| 가설 4 | 시민참여 효과성 부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 .382 (.918) | .086 | 4.443 | *** | 채택 |
| 가설 5 | 적극적 시민참여 → 공익몰입 (+) | .336 (.368) | .092 | 3.655 | *** | 채택 |
| 가설 6 | 제한적 시민참여 → 공익몰입 (-) | 25.314 (13.042) | 44.476 | .569 | .569 | 기각 |
| 가설 7 | 적극적 시민참여 → 동정심 (+) | .195 (.217) | .088 | 2.215 | .027 | 채택 |
| 가설 8 | 제한적 시민참여 → 동정심 (-) | 22.196 (11.627) | 38.960 | .570 | .569 | 기각 |
| 가설 9 | 적극적 시민참여 → 자기희생 (+) | .283 (.326) | .084 | 3.381 | *** | 채택 |
| 가설 10 | 제한적 시민참여 → 자기희생 (-) | 14.890 (8.076) | 26.187 | .569 | .570 | 기각 |

*** p<.001, 경로계수의 값은 비표준화 된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 )의 값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의 값

시민참여 효과성 인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설 1과 가설 4가 채택되었다.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 시민참여의 관계인 가설 1은 경로계수 추정치가 .470(C.R.=6.968)으로,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한적 시민참여의 관계인 가설 4는 경로계수 추정치가 .382(C.R.=4.443)로 채택되었다. 시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적극적 시민참여에 관한 관계인 가설 2는 부(-)적 영향이 드러날 것이라 가정했으나 그 수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제한적 시민참여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했으나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와 공직봉사동기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설 5와, 가설 7, 가설 9가 채택되었다. 적극적 시민참여와 공익몰입 간의 관계인 가설 5는 경로계수 추정치가 .336(C.R.=3.655)으로 채택되었고, 적극적 시민참여와 동정심 간의 관계인 가설 7은 경로계수 추정치가 .195(C.R.=2.215)로 채택되었으며, 적극적 시민참여와 자기희생 간의 관계인 가설 9는 .283(C.R.=3.381)으로 채택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제한적 시민참여와 공직봉사동기 간의 관계를 가정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앞서 진행한 상관분석에서도 제한적 시민참여와 공직봉사동기 간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기존 선행연구 중 Perry et al.(2008)은 가족 사회화와 종교적 활동이 공직봉사동기에 양(+)의 상관관계를 미침을 검증하였다. 일반사회화 변수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봉사경험이 공직봉사동기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김서용 외, 2010)는 연구라든가 경험한 주요 심리 상태(critical psychological states) 중 업무결과에 대한 경험된 책임감이 공직봉사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업무 특성의 경우 정책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책 형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공직봉사동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한에스더 외, 2012) 등을 바탕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즉,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태도와 노력이 봉사경험과 업무에 따른 책임감, 정책 형성 업무자로서의 동기 등과 관련이 있으며 시민에게 좀 더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노력이 결국 공직봉사동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시민참여 효과성 인식이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공직봉사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7] Sobel Test 결과, 적극적 시민참여가 시민참여 효과성의 긍정적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

서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539)에 정(+)의 직접효과를, 제한적 시민참여(-.178)에 부(-)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028)에 부(-)의 직접효과를, 제한적 시민참여(.060)에 정(+)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의 요인인 공익몰입(.360), 동정심(.345), 자기희생(.305) 모두에 정(+)의 직접효과를 가지며, 제한적 시민참여는 공익몰입(-.871), 동정심(-.801), 자기희생(-.546) 모두에 부(-)의 직접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공익몰입(.349)과 동정심(.329), 그리고 자기희생(.262)에 정(+)의 간접효과를 보이며,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익몰입(-.062), 동정심(-.058), 자기희생(-.041)에 부(-)의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가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7) Sobel Test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 | 연구 가설 | Test statistic | p-value(p<α=0.05) | 매개효과 |
|---|---|---|---|---|
| 1 | 긍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공익몰입 | 3.23943556 | 0.00119767 | O |
| 2 | 긍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동정심 | 2.11299458 | 0.03460123 | O |
| 3 | 긍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자기희생 | 3.03695594 | 0.00238980 | O |
| 4 | 긍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공익몰입 | 0.55825441 | 0.57667067 | X |
| 5 | 긍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동정심 | 0.55877491 | 0.57631535 | X |
| 6 | 긍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자기희생 | 0.55772771 | 0.57703033 | X |
| 7 | 부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공익몰입 | -0.01666649 | 0.98670268 | X |
| 8 | 부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동정심 | -0.01666620 | 0.98670292 | X |
| 9 | 부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자기희생 | -0.01666646 | 0.98670270 | X |
| 10 | 부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공익몰입 | 0.56454520 | 0.57238315 | X |
| 11 | 부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동정심 | 0.56508350 | 0.57201697 | X |
| 12 | 부정적 인식 → 제한적 시민참여 → 자기희생 | 0.56400050 | 0.57275379 | X |

〈표 8〉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결과[8)]

| 구분 | | 시민참여효과 긍정적 인식 | 시민참여효과 부정적 인식 | 적극적 시민참여 | 제한적 시민참여 |
|---|---|---|---|---|---|
| 적극적 시민참여 | 직접효과 | .539 | -.028 | - | - |
| | 간접효과 | - | - | - | - |
| | 총 효과 | .539 | -.028 | - | - |
| 제한적 시민참여 | 직접효과 | -.178 | .060 | - | - |
| | 간접효과 | - | - | - | - |
| | 총 효과 | -.178 | .060 | - | - |
| 공익몰입 | 직접효과 | - | - | .360 | -.871 |
| | 간접효과 | .349 | -.062 | - | - |
| | 총 효과 | .349 | -.062 | .360 | -.871 |
| 동정심 | 직접효과 | - | - | .345 | -.801 |
| | 간접효과 | .329 | -.058 | - | - |
| | 총 효과 | .329 | -.058 | .345 | -.801 |
| 자기희생 | 직접효과 | - | - | .305 | -.546 |
| | 간접효과 | .262 | -.041 | - | - |
| | 총 효과 | .262 | -.041 | .305 | -.546 |

▪경로계수의 값은 표준화 된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의 행정참여 효과성 인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직봉사동기 간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직봉사동기(PSM)는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P-O Fit),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성과(performance) 등의 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공공봉사동기(nonprofit public service motivation: NPSM) 연구(Park & Word, 2012; Word & Park, forthcoming; Word & Carpenter,

8) 본 연구에서는 독립 선행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효과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에서는 그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독립 선행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경로를 제외한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2013)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여,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 시민참여 성향은 규범적, 이타적, 공익 지향적 태도를 포함하는 공직봉사동기에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공직봉사동기가 시민 혹은 시민사회를 향한 인식과 태도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공직봉사동기를 향상시키는 요인들을 시민참여적 시각에서 분석하였고,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의 타인 지향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적극적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 시민참여가 다시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공직봉사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이나 채용제도, 승진 절차, 구체적인 직무 설계,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의 조직문화 및 구조 개혁 노력 등을 통해 공직봉사동기를 제고하고자 노력한다. 공무원이 시민과 더불어 공공 과업을 수행하는 공직수행과정에서 모두에게 긍정적, 참여적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긍정적인 사회경험과 봉사경험, 책임감에 대한 경험 등은 공직봉사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경험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가 업무에 있어 봉사 및 책임감을 높이고 본인의 직무와 역할에 자존감 및 만족감을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업무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시민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행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얻는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중요함은 물론 긍정적 경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시민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의 반복 등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현황 및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공직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 모두에 영향을 미치나, 적극적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의 행정참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제한적 시민참여에만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 시민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시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태도와 노력이

증가됨이 검증되었다. 공무원이 시민참여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행정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행정참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시민참여와 제한적 시민참여 중 적극적 시민참여만이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는  공익 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의 변수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와 공직봉사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제한적 시민참여는 공직봉사동기의 모든 요인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특히 공직봉사동기 중에서도 이타주의적인 동기나 희생 및 봉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과 시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업체제 구축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본 결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공직봉사동기(PSM) 관련 연구에서 동기의 선행, 과정, 결과요인들의 해석에 있어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적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Vandenabeele. 2007; Deci & Ryan, 2002).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정책 참여에 대한 의지, 긍정성, 자율성 등과 이러한 자기주도형 결정방식을 장려해주고 개발해 주는 조직, 사회적 특성 등이 공직봉사동기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책적 시사점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시민참여는 시민참여 효과성의 긍정적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서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해보면,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시민참여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공직봉사동기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따라 그들의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석한 것으로 시민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직봉사동기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무원의 공직봉사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영달과 이익 추구에 몰두하

기보다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헌신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공직봉사동기가 향상된다면, 정부의 정책 및 활동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정부와 시민의 상호협력이 증진되어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과 정부 성과가 제고될 것이라 예상한다(김상묵, 2013). 그렇기 때문에 공직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민참여에서 찾아보고자 한 시도와 공직봉사동기 중 타인 지향적 요소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와 함의를 도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었으며, 특정 시기에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닌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전체 행정기관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2단계 연구에서는 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과 공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비영리조직(NPO)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의 측정이 동일 시점의 설문자료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공통방법분산(common variance method)과 단일방법오류(mono-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양적연구 및 질적 연구(in-depth qualitative studies)의 보완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중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에서 공통성(communality)이 낮은 문항 1문항과 Cronbach's alpha 값이 0.6이하인 변수 2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 기준(IFI .912, TLI .915, CFI .910) 값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여러 차례 검토하여 이러한 통계적 한계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변수의 구성은 선행연구와 기존에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에 포함된 것이므로 통계적인 값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쉽게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상묵. (2013). 한국인의 공공봉사동기. 서울: 집문당.

김서용·조성수·박병주. (2010). 공직동기(PSM)의 형성요인: 사회화 요인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1): 147-177.

박성민·김민영·김민정. (2013). 개인-직무 및 개인-조직 간 적합성이 조직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2): 557-593.

박천오. (2002).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0(2): 1-28.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송경재. (2007).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국가전략, 13(4): 101-127.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6).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유재원·이승모. (2006). 한국의 시민접촉: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행정학보, 40(2): 53-72.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이훈영. (2006). SPSS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전영평·홍성만·김성희. (2007). 시민참여 유형분류를 통한 참여 성과 분석. 행정논총, 45(1): 193-220.

한에스더·이근주. (2012). 조직경험과 업무특성이 PSM(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행정논총, 55(2): 89-112.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Deci, E. & Ryan, R.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Langton, S. (1978).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Park. S. M. & Rainey, H. G. (2012). Work motivation and social communication

among public manag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3(13): 2630-2660.

Park, S. M. & Word, J. (2012). Driven to Servic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Public and Nonprofit Manager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1: 705-734.

Perry. J. L. (1996).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Assessmen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Theory, 6(1): 5-22.

Perry, J. L. & Hondeghem, A. (2008). Building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about public service motiv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 3-12.

Perry. J. L. & Brudney, J. L. & Coursey, D. & Littlepage, L. (2008). What Drives Morally Committed Citizens? A Study of the Antecedents of Public Servis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3): 445-458.

Perry, J. L. & Wise, L. R. (1990). The Motivation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373.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Rainey, H. G. & Steinbauer, P. (1999). Galloping elephants: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 1-32.

Sahlins, M.. (1972). Stone age economics. New York: Aldine de Gruyter.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Vandenabeele W. (2007). Toword a Theory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 Institutional Apporoach. Public Management Review, 9(4): 545-556.

Word, J. & Carpenter, H. (2013). The New Public Service? Applying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Model to Nonprofit Employe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2(3): 315-336.

Word, J. & Park, S. M. (2009). Working Across the Divide: Job Involvement in the Public and Nonprofit Sectors.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9(2): 103-133.

Word, J. & Park, S. M. (forthcoming) The new public service? Empirical research on job choice motiv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Personnel Review.

**김민정(金旻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비영리조직(NPO)의 성과관리, NGO 조직 관리,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시민 참여 등이다. 최근 논문은 "'일과 삶 균형' 정책과 정책 부합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2013). "개인-직무 및 개인-조직 간 적합성이 조직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3)이다(upmjok@gmail.com).

**박성민(朴盛民)**: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네바다 주립대(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그린스펀 행정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후 현재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인사개혁, 조직행태, 리더십 등이며, 최근의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Unveiling the Value Creation Process of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e-HRM)" (2014), "Determinants of Positive Job Attitude and Behavior in the Asian Work Context: Evidence from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2013), "Of Alternative Waves and Shifting Shores: The Configuration of Reform Values in the U.S. Federal Bureaucracy"(2012)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저서로는 "Public Management: A Research Handbook"(2013), "한국인사행정론"(2013) 등이 있다(sm28386@skku.edu).